광기업 기술 경쟁력… 광산업의 성패를 좌우 광기술원 "연구개발 중심 기업지원에 최선"

Interview / 한국광기술원 **유은영 원장**

광기술원은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지원

"광주 광산업은 1,2단계 기간에 국내외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기 구축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의 인프라가 기업의 매출, 고용 증대효과로 이어져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프라 혁신주체들은 역내 광 관련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껏 도와야 합니다"

지난 6월 15일 한국광기술원 제3대 원장에 취임한 유은영 원장은 광산업 육성에 관여하는 혁신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광 관련 기업들에 힘을 실어줘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유 원장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손꼽았다. 또한 기업이 가져야 할 제품기획이나, 마케팅 경쟁력 등과 함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핵심중 하나라고 단언한다.

"광클러스터를 들여다보면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기 구축된 장비 · 시설 인프라만큼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매출 규모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에 다소 부족합니다. 더구나 대내외적 시장 환경 역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는 기술력에서 뒤지고, 중국과는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현실은 국내 광산업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느냐, 못하느냐는 향후 광산업육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한국광기술원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는 유 원장이 갖는 고민 중의 핵심이다. 광기술원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 3년 동안 광주전략산업기획단 단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광기술원을 포함한 광산업을 지켜본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을 이제는 광산업의 중심에 서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숙제를 안은 것이다.

"전략산업기획단 단장 시절 외곽에서 한국광기술원을 보면서 광기술원의 역할에 대해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광기술원 원장으로서 광산업의 중심에 서 보니, 결국 중소기업들이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이며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한국광기술원의 사명이라는게 유원장의 지론이다.

광기술원은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지원

유 원장은 광기술원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광기술원의 설립목적은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으로 단순 명확하지만, 무엇이 먼저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연구개발에 더 치중하느냐, 기업지원에 더 집중하느냐의 문제이다. 둘 다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간단한 대답이 있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광기술원 내부에서 보면 연구개발에 중심을 두면 기업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고, 기업지원을 강조하면 연구개발이 뒷전에 밀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광기술원이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연구소인가, 기업지원을 우선하는 연구소인가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광기술원의 정체성은 앞서 강조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유 원장은 "그런 점에서 연구개발 역량 강화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바탕 위에 기업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연구개발을 축으로 한 기업지원을 말하며, 큰 틀에서 연구개발도 기업지원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기업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해 유 원장은 "그동안 광기술원의 연구개발이 광산업 2단계에서 LED/반도체조명, 광통신부품, 광응용 등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광기술원 연구원들이 적극성을 보일 때"라고 역설했다.

"기업과제에 대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기업들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다 보면, 기업들이 실전에서 겪는 애로기술과 필요기술이 무엇인가를 세부적으로 자연히 알게 될 것이고,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개발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성 있는 연구개발의 자세이자, 기업지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광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기업 기술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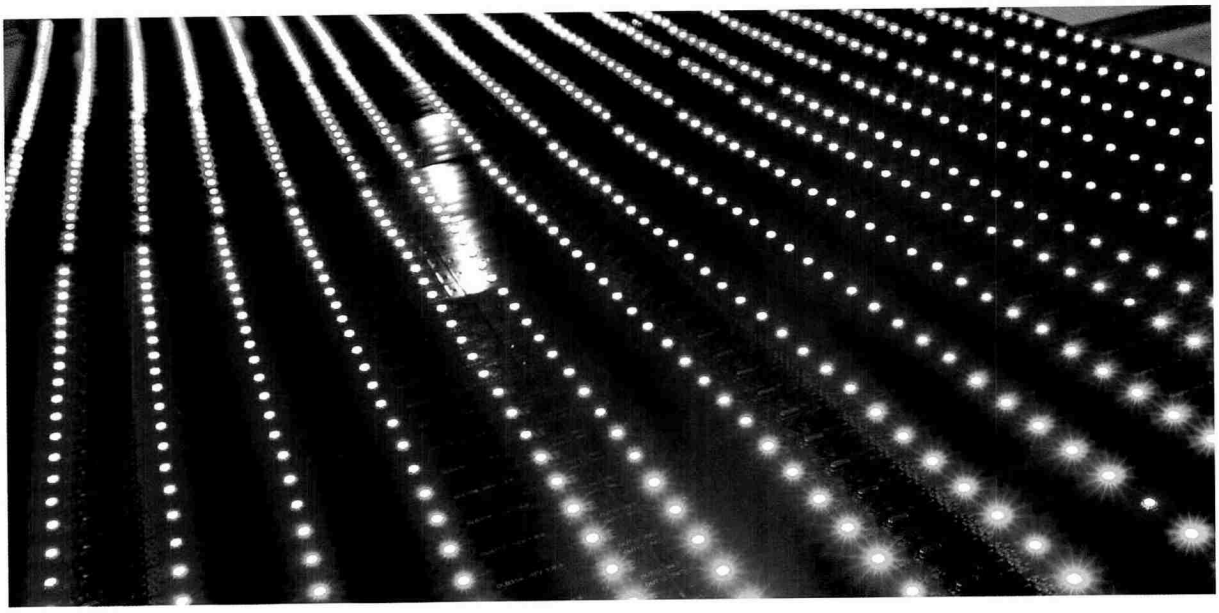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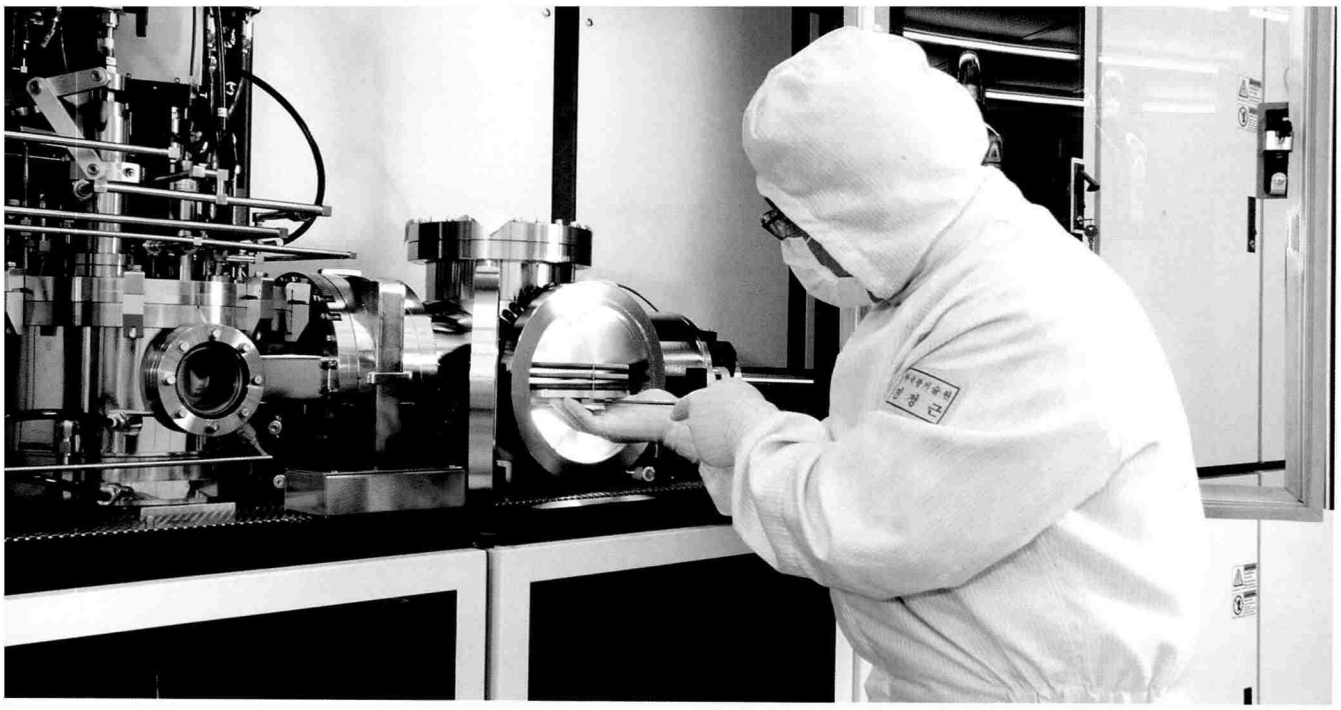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유 원장은 "기업지원은 고객인 기업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연구 또는 지원기관 입장이 아닌 기업이 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광 관련기업들은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 역량과 사업화 아이템 및 마케팅 능력 부족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충족시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유 원장은 "한국광기술원과 한국광산업진흥회, 테크노파크 등 광클러스터내 연구지원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종합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화 기술을 광기술원 주도로 개발하고, 광산업 공동브랜드(LUXKO)을 통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전략진흥사업인 광산업 발전의 핵심요소로 유 원장은 △중점 육성분야의 선도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차원의 기술개발과제 확보 △선도적 원천기술 개발 △고부가가치를 가져올 신산업 창출을 꼽았다.

유 원장은 "2단계에서 반도체광원, 광통신 부품 및 모듈, 광응용 산업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는 만큼 각 분야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선도 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혁신주체간의 상호연계 협력체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광산업분야 중 미래가 가장 밝은 반도체광원(반도체조명)분야에 대해 "광기술원을 중심으로 LED소자, 패키지, 응용 및 시스템분야 등 혁신기반이 확대되고 있고, LED밸리에 입주할 산업체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 전략차원의 기술개발과제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인 '신조명(반도체조명)산업기반구축산업'이 시작된 만큼 반도체조명 활성화를 위해 "LED밸리에 공동폐수처리장 등 산업지원시설 확충과 일본 니찌아 등 LED 분야 선도기업들의 특허를 피할 수 있는 선도적 원천기술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기술원은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지원

이와 함께 "광통신산업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M&A를 유도하고, 광기술원과 전자통신연구원광주연구센터간 연계협력을 통해 차세대 광통신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선행 연구개발함으로써 차세대 제품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는 중점 분야의 육성 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광응용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라고 강조한 유 원장은 "광기술을 나노, 바이오 등 새로운 첨단기술분야와 자동차, 가전, 금형, 의료기기, 에너지산업 등 기존 산업에 접목하여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산업 발전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광기술원의 내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유 원장은 광기술원을 기업 중심의 지원체제로 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광산업 육성의 중추역할기관인 광기술원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정립하고, 기업 친화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자세로 새 출발하는 의식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주문한다"는 유 원장은 "광기술원 구축 장비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편의 차원의 운영체제 개선과 고객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원장은 "광산업은 내년 2008년 2단계 종료 후 2009년 3단계가 시작되는 전환기에 들어섰으며, 향후 3~5년간 광산업 육성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는 광주 광산업클러스터가 국내 주요 산업클러스터로 성장 발전해 나가느냐, 아니냐를 가늠 할 시험대"라며 "광산업 최종성과인 기업 매출, 고용 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광주를 기반으로 국내 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광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지원기관, 관, 학 모두가 기업지원에 있어서 너, 나 따로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유 원장은 덧붙여 "그 중심에서 광기술원은 항상 열린 자세와 열린 문으로 기업을 대할 것"이라며 "광기술원과 기업이 상생하고, 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